

한국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5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80% 이상이 화계사 조실 승산스님의 제자다. 세간에 잘 알려진 제자들로는 현각스님과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 및 주지 오진스님 등이다.

나머지는 강화 국제선원장이자 연등국제불교회관 주지인 원명스님과 서울 금강선원장 헤거스님 등의 제자들이다. 강화연등선원에서 수행중인 혜정, 일고, 일고스님 등이 원명스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

마곡사 은적암 성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비구니 자은스님은 98년 공주대학에서 영어강사를 하는 등 다른 외국인 스님과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한국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의 국적도 미국·캐나다 뿐 아니라 독일 세르비아 등 유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의 아시아권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외국인 스님 가운데 무상사 대봉·오진 스님 등 조계종단 기본교육체계가 갖춰지기 전인 95년 이전에 한국에서 출가한 몇몇 스님을 제외하고는 조계종단에서 주는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거의 없다. 종단이 인정하는 비구계를 받기 위해서는 동국대나 강원, 중앙승가대 등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을 나와야 하나, 이들 외국인 스님 대부분은 한국어에 익숙치 못해 이곳에서 공부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비구계 수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기초선원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각·대봉 스님 등 50여명
언어문화 차이 수행으로 극복
한국불교 외연 확장 큰 기여
조계종, 기초선원 지정 검토



외국인 스님 대부분은 한국에서 출가에 참선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동안거 때 논산 무상사 선방에서 참선상에 든 모습.

한국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

하루하루 치열하게 수행·포교 매진



베스트셀러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 외국인 스님 현각스님. 현각스님이 3월 미8군 용산기지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

5월 3일 오후 미 8군 용산기지 내 S-Post 교회. 주한미군과 그 가족 등 200여명의 외국인들이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현각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였다. 현각스님은 이날 '한국불교란 무엇인가(What is Korea Buddhism)?'를 주제로 설법을 했다. 한동안 만행 중이던 현각스님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꽤 오랜만이었다. 법회 참가자들은 모두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로, 이들은 스님의 설법이 끝난 후에 불교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한국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각스님은 부처님께서 증생의 근기에 따라 대가설법을 하셨듯 재미있는 일화와, 선문답 등으로 질문에 답했다.

조계사 근처나 송광사·화계사 등 큰절에서는 파란 눈에 갱년 법복을 입은 외국인 스님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한국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낯선 모습. 흔히들 '외국인 스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들 스님들은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를 그리 달기위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불제자(一佛弟子)'인 것일... 이들 외국인 스님들을 관심 깊게 지켜본 이들은,

외국인 스님들의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마음은 오히려 한국의 불자들보다도 더 경건한 듯 보인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지만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는 그들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오히려 한국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충남 논산 계룡산 국사봉 아래 위치한 무상사. 6월 오전 무상사를 찾았을 때 명안스님(말레이시아)이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달마전 아래 위치한 무문관을 막 나왔다. 무상사의 총무 소임을 맡다보니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명안스님. 무상사에서는 수행이 게을리한다고 생각되면 누구든 주저 없이 무문관에 들어가 묵언과 하루 한 끼의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안거 때는 물론 산철에도 무상사의 수행기풍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낮 12시가 되자 한국인 한 사람이 무상사를 찾았다. 미국,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7개 나라 13명의 외국인 스님들은 해제기간 동안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 한국인 선생님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다. 거꾸로 매주 일요일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선데이 클래스'

법회를 통해 한국인에게 불법을 전한다. 부처님 오신날인 19일에는 특별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무상사 주지 오진스님(폴란드)은 "한국어, 한국문화를 배운 스님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알리며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며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도님들에게 보답하고 수행자로서 중생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강화에 위치한 연등선원에도 혜정·일고(대만), 일고(스위스), 수마나라타나(스리랑카), 헤달(인도) 스님 등 5명이 수행에 몰두하고 있고, 순천 송광사와 부산 범어사 강원에서도 각각 4명과 1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인 스님과 똑같은 교재로 공부하고

양교육을 받고 있다.

외국인 스님들은 수행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통도사 부신포교원 원명스님(폴란드)은 1인2역을 해내는 포교사다. 원명스님은 현재 부신포교원 부설 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다. 문화재단에서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달 한차례씩 마련하고 있는 말씀, 시조창, 판소리, 다도, 전래놀이, 참선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통역을 한다.

스님은 또 선무도에 관심이 많아 5년 전부터 경주 굴굴사에서 선무도를 배우고 있고, 매주 월요일에는 포교원 부설 연꽃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선무도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통도사 부신포교원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조계종 국제포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제초기선봉사에 대해 강의도 했었지만 가급적 수행과 공부에만 몰두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도반인 청도스님도 한국어를 배우는데 여념이 없다.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일보스님(한글라테세)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불교초기역사, 화·수요일 명상, 목요일 불교기초교리, 금요일 경전공부, 토요일 영어회화 및 요가 강좌를 진행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보스님은 "학생들은 10여명 안팎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딱딱한 일정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정진하며 포교에 임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3년 전,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산디마 스님(미얀마)은 서울 암사동에 미얀마 선원을 개설하고 고국민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얀마에서 출가했지만 송광사와 서울 백련사를 오

한국문화 소개·영어 교리 강좌도

- 7개국에서 온 스님 13명
- 무상사에서 선데이 클래스 법회
- 화계사선원·범어사강원 등 일체 외부접촉 끊고 정진
- 귀국해서도 한국불교 알리는 '일등포교사'

갔다. 강원의 스님들은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끊고 있다.

외국인 스님들의 수행처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에서는 6명의 스님들이 수행에 몰두하고 있으며, 전남 보성 대원사에는 이달 초 오광스님(세르비아)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자리를 틀었고, 티베트인 소남 행자도 스님이 되기 위한 소



지난해 5월 부처님오신날연등국제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http://busanbuddhism.org)의 영어 페이지를 관리하며 사이버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 금강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고스님(미국)은 현재 동국대학교 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큰스님들의 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가며 용맹정진했던 산디마 스님은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불광산사에는 중국 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의은스님 등 4명의 대만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가해 수행하던 스님 가운데는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알리며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도 많다. 대표적인 스님으로는 대광스님과 청안스님을 꼽을 수 있다. 대광스님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송광사법원장을 맡으며 크리스천과 불교의 조화, 종교 간의 대화 등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청안스님은 한국에서 5-6년 수행한 뒤 고국인 헝가리로 돌아가 부다페스트총법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명우·김주일·김두식 기자

상표등록

미수터라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증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첨단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3-591-4861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